

혈중 렙틴과 비알코올성 지방간과의 관계

인하대병원 내과학교실 이은상*, 이진우, 김형길, 김범수, 이돈행, 조현근, 권계숙, 신용운, 김영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은 알코올이나 간염 바이러스에 의하지 않고 지방산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의 실질세포내에 축적된 경우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써 비만이 있으며 그 밖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렙틴은 체지방이나 체질량지수에 관계없이 고인슐린혈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고인슐린혈증은 고중성지방혈증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렙틴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자에서 혈중 렙틴을 측정하여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체질량지수 (BMI)가 25 kg/m² 이상인 성인 남자중에 간기능 검사와 간초음파를 기준으로 대조군과 환자군 (비알코올성 지방간군)으로 구분하고, 연령 및 다양한 신체검사치와 간기능 검사, 혈당, 그리고 지질검사와 인슐린 및 렙틴을 측정하여 양 군을 서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ontrol (n=26)	Non-alcoholic fatty liver (n=30)	p-value
Age (years)	47.8±12.1	44.3±9.3	0.226
BMI (kg/m ²)	27.2±1.3	27.4±0.9	0.492
Triglyceride (mg/dL)	173.7±107.6	260.3±138.0	0.012
Insulin (uU/mL)	10.2±3.7	13.9±6.2	0.011
Leptin (ng/mL)	3.4±1.4	5.3±2.6	0.002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양 군간에 연령과 체질량지수는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중 렙틴은 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연령이나 체질량지수와는 무관하게 혈중 렙틴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병인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Sun-10 —

antiSmith Ab 양성, antiDsDNA Ab 양성을 보인 자가 면역성 간염

전주 예수병원 내과 조진웅*, 이태관, 이용웅

자가 면역성 간염은 국내에 상당수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보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저자들은 심한 황달 및 간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전신성 홍반성 낭창의 간침범과 구분이 어려웠던 자가 면역성 간염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68세 남자로서, 소화불량 및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일반 혈액 검사상 혈색소 13 gm/dl, 백혈구 9,800/, 혈소판 182,000/이었으며, 혈액 화학 검사상 ALP 307 IU/L, total bilirubin 32 mg/dl, direct bilirubin 24 mg/dl, albumin 3.7 gm/dl, total protein 8.2 gm/dl, AST 804 IU/L, ALT 421 IU/L, prothrombin time 12.9 sec이었다. HBs Ag, HAV Ab IgM, HBc Ab IgM, HCV Ab, HCV RNA 모두 음성이었으며, 복부 초음파 소견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혈청 ferritin 1000이상 ng/ml이었으며, 혈청 ceruloplasmin, 24시간 urine Copper검사는 정상이었다.

antinuclear Ab (3+)-homogenous pattern, antiSmith Ab 양성, antismooth muscle Ab 양성, antiDsDNA Ab IgG 양성, antimitochondrial Ab 음성, antiLKM1 Ab 음성이었으며, IgG 3566 mg/dl, C₃ 180 mg/dl, C₄ 22mg/dl, CH₅₀ 47 소견보였다. 간조직 검사상 grade 3, stage2의 inflammation소견 보였다. International Autoimmune Hepatitis Group이 1992년 발표한 scoring system상 19점이었다. 상기 검사소견상 자가 면역성 간염 type I으로 진단하고, 환자는 prednisolone 매일 30mg씩 경구 복용하였으며, 간기능이 정상화 된후 용량 감량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악화되었다. 현재 azathioprine 50mg 추가하여 prednisolone 감량하고 있으며, 매일 10mg 사용하여 정상 간기능 유지하고있다.